



미국 인프라투자 ETF와 중국 삼일중공업의 강세

1. 미국 인프라 투자 ETF로의 자금 유입 동향

- 최근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 ETF 들의 상대 주가가 개선되고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음
- 당장은 코로나 긴급 재정정책에 대한 합의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인프라 투자를 수반한 재정 정책의 실시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

2. G2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

- 1월 실시되는 상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중국의 14.5개년 경제 계획의 성장률 목표치를 감안하면, 투자 사이클 역시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

3. 중국 대표 굴삭기 업체의 주가 추이

- 최근 중국 증시 건설기계 업종 대표주로 볼 수 있는 삼일 중공업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 호조와 더불어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도 함께 진행 중인 모습
- 미국과 중국의 투자 사이클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강해질 수 있는 국면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철강주, 건설기계 업종 등에 대한 관심도 유효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주식시장 투자전략

1. 미국 인프라 투자 ETF 로의 자금 유입 동향

최근 ETF 동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 중 한가지가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ETF들의 수익률 개선과 자금 유입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종 ETF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iShares US Infrastructure ETF(IFRA US EQUITY)가 대표적이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여전히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나스닥 지수 대비 눈에 띄는 수익률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S&P500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자금 유출입 동향을 살펴 보면 대신 전후를 기점으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PAVE US EQUITY)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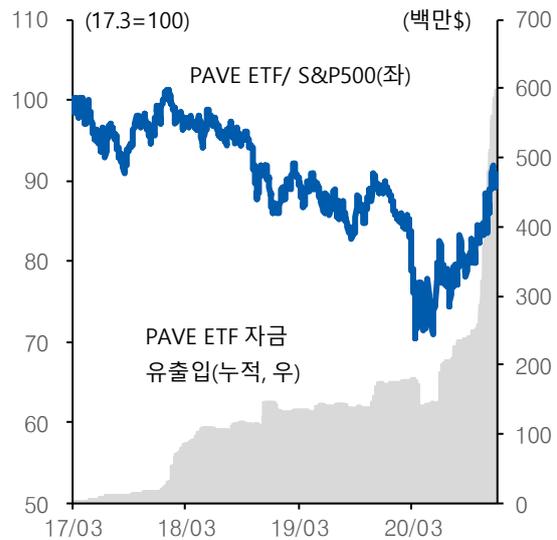
이 같은 동향은 미국의 재정 지출과 관련된 기대감이 기저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물론 당장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제시된 민주당의 정강을 보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논의 중인 9,080억\$ 규모의 긴급 지원책의 적용을 반영한다해도 여전히 고용과 경기 전반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는 만큼 집권 후 이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명분도 존재한다.

[차트1] 대표적인 미국 인프라 투자 ETF 인 IFRA 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진행 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유사한 성격의 PAVE ETF 의 경우 S&P500 지수대비 상대 수익률 개선과 자금 유입이 확인되고 있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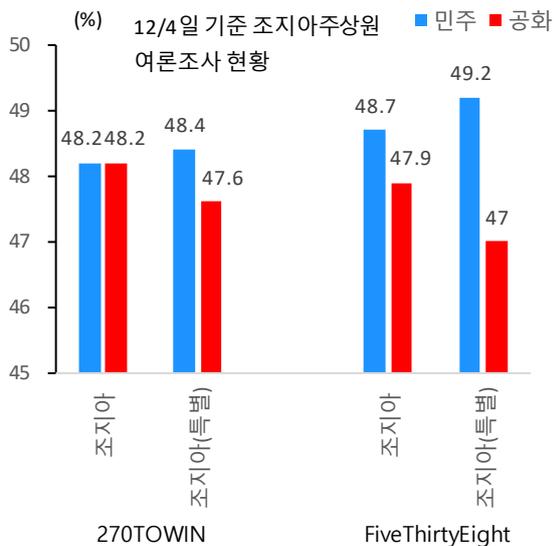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2. G2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

이와 관련해 1월 진행될 상원 결선 투표가 중요한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조지아 주 2개의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격차를 좁히고 우위를 점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격차가 아직 미미하고 조사 별로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미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시켜 주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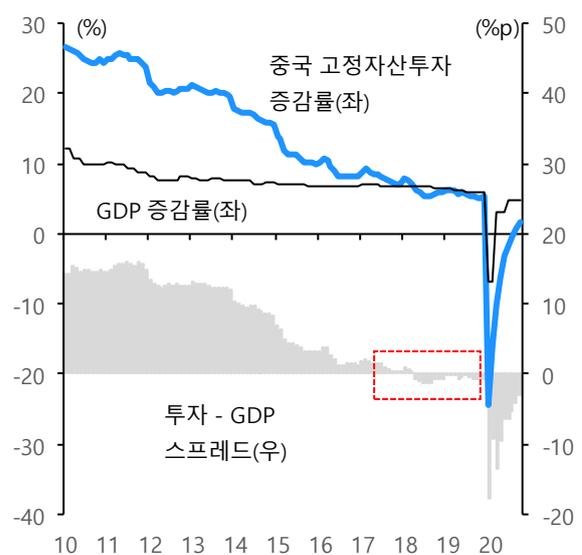
한편 재정정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중국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21~'25년 14차 5개년 경제 계획 구간을 진행하는데 최근 19기 5중전회에서 해당 기간 동안 평균 5% 이상의 성장률과 35년까지 인당 GDP를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중국이 과거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소비 중심으로 노선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낮지 않은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투자가 전체 성장률을 하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림과 같이 GDP와 투자 증가율 간의 관계를 보면, 투자 증가율이 장기 우하향 경로 하에 있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성장률에 준하는 수준에서 투자 증가율은 안정화되고 있었다. 더불어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화 역시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국의 투자 사이클 지표는 조금 더 높은 레벨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차트3] 1월 진행될 조지아주 상원 2석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현황. 민주당이 다소나마 우위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각 사이트,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중국의 성장률 목표가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증가율도 지금 보다는 높은 수준에 진입할 듯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중국 대표 굴삭기 업체의 주가 추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 등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잘 반영하는 종목 중 한 가지는 중국의 삼일중공업(600031 CH EQUITY)이다. 아래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삼일중공업의 상해종합지수 대비 상대 주가는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함께 표시된 바와 같이 주가 급등이 내년도 이익 전망치의 가파른 상향 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듯 하다. 해당 종목이 중국 대표 굴삭기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중국에서도 투자 사이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해당 기업의 업황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굴삭기 판매 데이터는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구조적 변화 논리와 코로나 상황 하의 언택트 컨셉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거나 내년 중 코로나에 의해 극단적으로 위축되었던 여러가지 경제 활동들이 정상화 영역으로 회귀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들도 뒷받침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전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가 적어도 연초까지는 심화되는 상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강과 건설기계 업종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차트5] 중국 대표 굴삭기 업체인 삼일중공업의 이익 전망치 및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굴삭기 판매 데이터. 한국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건설기계 주요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현대건설기계, 진성티이씨

